

남에게 듣고자 하는 고백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창 04:03-05)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슬하(膝下)에 ‘가인’(Cain)과 ‘아벨’(Abel)을 두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당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에게 짐승을 희생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줄 가죽옷을 만드시고 이를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내막을 여기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취한 아담과 하와는 비로소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윽고 선악을 알게 된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다름 아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두르고 나무 사이에 숨은 일이었습니다(창 03:07-10). 창조된 이후 그들은 처음으로 벗은 것이 악(惡)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악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하체를 나무 잎으로 가린 꼴이 되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벗은 몸이 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성적 상징의 노출을 깨닫게 된 자체가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고 이를 가리고자 두르게 된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가린 꼴이 되었지요. 악은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였고 또한 숨게 하였습니다. 곧 악한 행실을 한 사람은 본래 숨게 마련이고, 두려운 마음이 있게 마련이며, 또한 악을 감추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보아 그들 또한 이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무와 나뭇잎은 악을 가리기 위해 그들이 취한 수단이고 방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는 하체를 정히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손수 희생동물을 잡아 가죽으로써 치마가 아닌 옷을 지어 입히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설 수 없음을 의미한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희생동물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죄인 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 03:21)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사된 우리의 죄 또한 도말(塗抹)해 주시고자 사랑하는 외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위에

보내어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끝 간 데 없는 무한한 사랑이 아닐 수 없음을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08)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갈 01:04)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 05:02)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살전 05:10)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벧전 03:18)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 일 04:10)

위 창세기 기록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아담의 일가붙이에게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의 표시로서 뿐만 아니라 이를 그들에게 향시 되새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희생제사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그것도 가장 기름진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경우 아벨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에 대한 희생으로 생각하고 희생제물을 자기의 몸을 대신 하여 바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을 바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엎드려 자복하는 뜻을 제사에 다분히 담아 두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부모의 원죄(原罪)로부터 자신 또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여 그 믿음 안에 거하고자 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다름없이 아벨의 제사를 열납(悅納)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히 11:04)

이에 반하여 가인의 제물은 자기의 공적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곧 자기의 생각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려는 교만한 마음을 앞세워 두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무엇보다도 이 같은 교만한 생각과 행위를 앞세워 두었던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고 자신의 죄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열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분(憤)을 토해냈고, 급기야 그 분을 삭이지 못하고 끝내 끓어오르는

화(火)를 동생에게 분화(噴火)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의 죄를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아가 대적하기에 이르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음의 기록이 이를 증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창 04:09)

결국 아벨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가인은 악한 자의 효시(嚆矢)이자 표상이 되기에 이릅니다. 인류가 창조되자마자 곧바로 피 흘림의 죄악사(罪惡史)가 전개된 것은 실로 슬프고도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전쟁이었다면 또 모를까 둘도 없는 혈육으로서 동생을 참살(慘殺)한 것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서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인의 거짓말’에 관한 것입니다. 도대체 거짓말은 무엇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일까요? 거짓말에 감추어진 본질과 행태는 무엇이고, 그 결과와 끝은 과연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일까요?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 기록에서 가인은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에 대한 거짓말은 고사하고(“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 되레 원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곧 하나님을 자신의 발아래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설마 알 턱이 있을까?”하는 심산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도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실을 녀잡아 알고는 있었을 텐데 되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요량이면 지능이 한참 모자란 위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냈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은 반드시 대적(對敵)을 수반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표현한 우리네 옛말이 아마도 “방귀 뀌 놈이 성낸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또 다른 말에서 이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창 04:10-13)

하나님께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를 물어 그로 하여금 땅에서부터의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도 농사짓는 자였으니만큼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죄의 대가(저주와 유리)에 대하여 “내 죄벌(罪罰)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보아야 할 것은 곧 ‘죄벌’이라는 말(단어)입니다. 원어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NIV) ‘Punishmen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Punishment’는 ‘죄에 대한 대가’, 곧 ‘죄에 대한 벌(죄벌)’로 해석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인의 말을 대할 요량이면 하나님께 대한 죄스러움의 표현으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인이 말하고 있는 ‘Punishment’는 하나님을 향한 죄스러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만약 죄스러움의 표현이었다면 ‘Sin’ 또는 ‘Iniquity’가 되어야 합니다. ‘죄’ 또는 ‘죄악’으로 말입니다(Iniquity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나 필자의 시각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취급해도 이 글의 뜻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두 가지 말을 풀어헤쳐 다시 보면 아마도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죄에 대한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Punishment)

“동생 아벨을 죽인 죄에 대한 악이 너무 무겁습니다”(Iniquity)

위의 것은 “하나님의 벌이 너무 무겁다”는 의미로, 곧 우리식대로 이야기하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아래의 것은 “정말이지 죄송합니다”의 뜻을 담고 있는 말로 새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원성을 자아내고, 또 다시 대들고 말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싶습디만, 이 같은 가인의 거짓말은 본래 그의 부모에게서 비롯된 유전자[遺傳子, DNA(deoxyribonucleic acid)]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비 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계율은 먹어도 될 식물과 먹지 말아야 할 식물의 구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02:16-17)

위 창세기 기록의 앞뒤 전후를 살펴볼 때, 당시 하와는 창조되기 전이었습다. 그렇다면 아담은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이 명령을 하와에게 전달한 셈이 됩니다. 물론 이 때까지 하와는 이름이 없었고 다만 여자였을 따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 잠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사자성어로 침소봉대(針小棒大)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통상 작은 일을 사실과 다르게 크게 부풀려 떠벌리는 사람을 지탄할 때 자주 쓰입니다. 곧 침소봉대는 대체로 남의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자주 나타나기 십상인데, 밑바닥에는 일반적으로 남의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짙게 깔려있음이 보통입니다. 또한 침소봉대는 남의 말에 대한 왜곡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일상에서 침소봉대의 행실과 언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아가 왜 즐겨하고 있는 것일까요?

필자의 생각에는 남의 말을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보다,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보다 쉽고, 또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왜곡된 말로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에서 보다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곡된 말이 남을 칭찬하고, 기쁨을 더하거나, 또는 슬픔을 덜 수 있는 말이라면 모를 일이지만, 대체로 우리는 이러한 선의의 침소봉대를 낫설어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말을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남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다시 앞선 화제로 돌아가 봅시다. 하와는 뱀의 질문에 아담에게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전달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창 03:01-02)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뱀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은 ‘먹을 수 있게 하셨고’(전자)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느냐’(후자)입니다. 후자의 것은 전자의 그것과는 달리 조건을 붙여두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전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한 답변이고, 나중의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관대하신 분은 아니라는 무의식중의 의식이 깔려있는 대답처럼 보입니다. 이는 하와의 두 번째 대답에서 극명하게 노출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창 03:03)

하와는 아담에게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뱀에게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하와의 변과 같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하여 이를 왜곡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한 하와는 자신의 시각에서 “죽을까 하노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길 수도 있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말로 취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선악과를 따 먹더라도 혹여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마저도 내포하고 있는 말로 해석할 수 있기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담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정확한 불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의 다소 부정확한 답변은 어디에서 또한 어떤 심사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따지고 보기에,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전했거나, 하와의 침소봉대에 기한 왜곡, 둘 중에 어느 하나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나마 아담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로 치자면 훨씬 나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아무리 왜곡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와는 분명 뱀의 유혹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시각에서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아무런 기억도 없었고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곧 ‘주니 그저 먹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 03:06)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03:12)

백 걸음 천 걸음을 양보하여, 아담은 하와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먹었을 수도, 아니면 선악과를 취한 하와의 경험에 부러워서 먹었을 수도, 이도저도 아니면 하와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감당하고자 먹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와에게 한번쯤은 되새겨 볼 수 있도록 경고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내의 제안을 보다 우선하였고, 이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죄라도 아담의 죄는 하와보다 더 중하고 무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본 가인의 거짓말과 아담과 하와의 거짓말을 모두 합쳐 ‘거짓말’이라는 틀 속에 가두어 분류(본질과 행태)를 유추해 보면, 곧 ‘교만(驕慢)’이라는 한 단어로 새겨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경우 사전(字典)에서 교(驕)는 ‘무례하다, 버릇없다, 잘난체하다, 오만하다, 속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만(慢)은 ‘게으르다, 오만하다, 모멸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면 뜻은 보다 명확해집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상에 두어도 그 뜻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사람) 앞에서 무례하기,

버릇없기, 잘난 체 하기, 오만하기, 속이기, 게으르기, 모멸하기, 업신여기기 짝이 없다”는 것을 교만의 정의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만과 죄를 나눈 거짓말은 마찬가지로 이상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패악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이 모두를 낱알이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중요한 거짓말(교만)의 본질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패악함(죄)에 대한 고백(告白, 죄악과 그 잘못에 대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앞서 우리에게 ‘죄악’이 아닌 ‘죄벌’이라는 말로부터 증거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곧 고백 대신에 변명(辨明)만을 끝까지 앞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변명은 이유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적(對敵)입니다. 고백하여야 할 대상을 업신여겨 고백은커녕 되레 자신이 고백을 받고자 하는 대적 말입니다.

그간의 필자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누가 필자에게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필자는 주저 없이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실명을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 또한 예의가 아닐 것이라 여겨 이하 그 실명은 나타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그분들의 면면을 소개함에 있어 필자 또한 우리 모두 가슴 한 켠에 교만(驕慢)과 고백(告白)이라고 하는 어의(語義)를 반드시 자리매김 해두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한 분은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6.25때 피난 내려와 서울에서도 가장 빈곤하고 척박한 땅이었던 청량리에 천막교회를 세우게 되십니다. 인근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에 임하셨던 때문인지 그분의 모습은 항상 청빈하고 그렇지만 남루하지 않은 깨끗한 행색으로 지내셨습니다.

소천(召天)하신 그때까지 교회는 주변 환경에 비추어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을 정도로 아담하였습니다. 항상 설교는 짧고 굵게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례로 필자가 고교재학 중이던 시절 3.1절 기념예배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는 놀랍게도 기도를 포함하여 고작 5분이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설교가 무던히도 짧았다는 것도 이유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때의 설교말씀이 너무도 강렬했던 것이 지금까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이름이 무엇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조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국화(國花)가 무엇이지요?”

“대한민국과 무궁화 그리고 이를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신 하늘보좌에 앉으신 그 분의 기록하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보아 이 땅과 그 나라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찬송가를 대신하여 부르던 애국가, 필자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 예배가 과하였음에도 또 다시 단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던 목사님의 모습과 두루마리를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이 지면에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의 청빈도 짧은 설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분께서 교회를 향하여 편지로 남겨두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백(유언)입니다.

“죄 많은 이 사람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성도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이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넉넉지 않은 교회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도 원로목사라고 대우해 주신 것에 대해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고 죄스럽기만 합니다. 원로목사랍시고 매달 보내주셨던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 의미 있게 쓰지 못하고 어려운 교회형편에도 나 몰라라 꼬박꼬박 뒷전에 두었던 것 이는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교회 앞에서나 씻을 수 없는 죄로 보아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결코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세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이 늙은이 저 하늘에 이르러 하나님을 뵈기야 하겠지만, 지난 죄를 생각하면 두렵기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입을 터 주신다면 마땅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구코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뵈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이 땅위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제 처는 우리 큰놈에게 맡겨둡니다. 다시는 신경 쓰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여기에 그간 틈틈이 모아두었던 그도 얼마 되지 않은 재물을 우리 교회에 다시 돌립니다. 뜻 깊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목사님께서 구하신 용서는 한마디로 오래 사셔서(90세) 그간에 교회로부터 축낸 원로목사님으로서의 대우(생활비)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기쁨으로 대했는데, 실상 목사님께서서는 적잖이 부담되셨고 또 불편해하셨던 모양입니다.

다른 한 분은 청량리가 아니라 인근 청계천에 본거지를 두고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또한 청계천 빈민촌에 인생을 두셨습니다. 부랑아, 녀마주이, 왕패잡배 그리고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아나가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 전파에 피끓는 젊은 청춘을 바치셨습니다.

때로는 없는 형편에 무리수를 두어가며 그들의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하여 이모저모로 애쓰시다가 본의 아니게 깊은 수렁에 빠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렇게 목회활동에 임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 목사님의 깊은 영성과 설교말씀은 영역을 넓혀 이윽고 자립된 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릅니다. 상가 지하주차장을 개조해서 만든 교회는 불과 수년 만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마저도 비좁을 정도로 앉을 자리가 없게 되었고 급기야 헌금에 헌금을 쪼개고 쪼개 인근에 교회다운 교회로서 새로운 신축교회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목회자 정년 70세를 더함도 덜함도 없이 마치시고 이제는 새로운 개척지에서 지금껏 그래 오셨듯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며, 노동에 임하며, 기도에 힘쓰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 은퇴 즈음 이 목사님은 설교시간을 통하여 몇 가지 회한을 피력하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회이기 이전에 여러분께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이기도 합니다. 이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낱낱이 고하는 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이러한 설교를 말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에 제 마음은 그저 두렵기만 할 따름입니다.”

“첫째는 목회활동보다도 바깥일에 집중하고 열중했던 것 부디 회개하고 참회하는 바, 이점 널리 용서를 구합니다. 뜻 모를 이 사람의 헛된 노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이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둘째는 초심을 잊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생활이 너무 난잡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한 중에 은밀한 중에 영성을 담아가고자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기도해야했었을 텐데, 이런 저런 핑계로 이를 다 물리치고 세상 것에 취해 있었던 것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합니다.”

“셋째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분 한분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찾아보지 않고 이를 집밖에 두었던 것 재삼 용서를 구합니다. 부디 이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목사님께서서는 설교 중에 특별히 몇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때를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우리 교회와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등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필자 스스로가 느끼기에 은연중 필자의 기도에서도 때마다 보여 지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기에 필자가 여기서 바로 보이고자 하는 것은 교만의 강 건너에 있는 고백입니다. 목회자로부터 이 같은 고백이 있음에야

우리의 고백 또한 이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분 목사님을
필자가 존경하고 있는 이유는 이분들의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본받을 만한 인생역정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공로에서 비롯된 것임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겸손하고도 신실한 고백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고백을 주위에서 자주 들었으면 싶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메아리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앞선 혈전의 선대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러한 고백을 주위에서 듣기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 속에 매한가지로 묻혀
버려서 일까요? 아니면 필자의 귀가 막혀버려서 일까요? 오늘도 수차
레의 전화로 사람들과 통화했던 것을 보면 필자의 귀는 뚫려 있음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혹시나 고백이 교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남에게 듣고자 하는 고백’으로서 교만 말입니다.